게임에 필요한 준비물을 직접 만들어
'흙 속에 있는 것' 찾기
게임활동을 했어요.

흙 속에 있는 것을
찾아서
융판에 붙여주는
게임입니다.

핸드폰의
사진기능을
이용해서 QR을
스캔해보세요.^^

아이들은 게임활동을 통해
흙 속에 있는 것을 더 잘
알 수 있게 되었어요.

흙 속에서 뿌리를 찾은 아이들은 놀이시간이 끝날 때까지 뿌리 찾기 놀이를 계속하며 찾을 때마다
교사에게 와서 "선생님 또 있어요."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교사에게 보여주었어요.
그리고 이 후에도 바깥놀이를 할 때마다 땅파기 놀이는 계속 되었고 아이들은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
땅 속에서 찾은 것들을 교사에게 소개해주며 즐거워했어요.^^

5월 난초반 놀이

땅파기 놀이를 하며 친구들과
땅 속에 있는 것들을
알아보았어요.
땅 속에는 개미, 돌, 뿌리,
굼벌레, 쓰레기, 흙,
지렁이 등이 있었어요.

직접 땅을 파보며 알아본 것들과 책을 통해
알아본 것, 그리고
다양한 표상활동, 놀이활동을 통해
알아본 것들을 표현해 보았어요.

흙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전
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해 보았어요.

교사의 물음?
"그럼 흙 속에는
또 어떤 것들이
있을까?"

바깥놀이터에서 땅파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생겨났어요.
교사가 "왜 땅파기 놀이를 하니?"라고 물었더니
"난 곤충을 찾으려고요." "난 애벌레를 찾으려고요."라고
대답했어요.

책을 통해 흙 속에
사는 것들을
알아 보았어요.

"찾았다. 땅 속엔 뿌리가 있지."

바깥놀이 활동 시간에
친구들과 함께
흙 속에 있는 것들을
찾아보는 모습입니다.

"찾았다. 땅 속엔 돌이 있지."

"찾았다. 땅 속엔 굼벌레가 있지."